

정례브리핑

2021.6.25.(금) 10:30, 차덕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 10시부터 통일부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바이든 시대: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한반도의 미래는'을 주제로 한미 양국의 의원들과 외교·안보·북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됩니다. 통일부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12시 50분부터 기조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통일부는 내일 모레인 6월 27일 일요일 1시 반에 DMZ 평화의 길 통일 걷기, 6월 동서 횡단 행사를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파주 임진각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출발하여 12박 13일간 접경지역 약 290km를 걸으며 분단 상황과 평화 통일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해단식에는 통일부 장관과 통일 걷기 홍보대사 윤택, 김민수 씨 그리고 6월 동서 횡단 여정을 함께한 참가자들이 모두 함께할 계획입니다.

통일부 장관의 축사, 참가 대표자들의 귀환 보고, 통일 걷기 촬영 영상 감상, 축하공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해단식은 현장에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취재가 가능합니다.

기타 일정으로 통일부 장관은 조금 전 10시부터 통일부 관련 법안을 상정·의결하는 과정에 참석하여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특별한 일정이 없이 부내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보실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6.25전쟁 71주년 기념식이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데, 6.25전쟁 관련해서 혹시 정부나 통일부의 입장이 오늘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행사는 지금 보훈당국에서 권한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된 입장은 보훈당국에서 적절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끝>